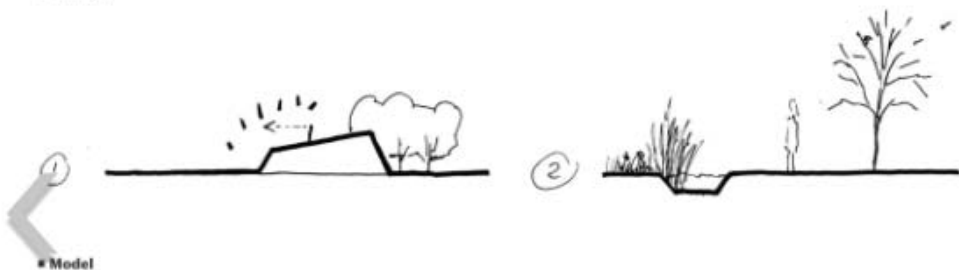




■ Concept



■ Model





Skate park designed by zMOVE



Plan_Underground infrastructure

광범위한 인프라 대응으로서의 토목공사

미들 에리살몬데 개발(Development Middle Usselmonde)을 대표해 호스퍼(HOSPER)는 카니슬란데 포틀랜드 비넥스 로케이션(Caanslân-de-Porten) 북쪽에 있는 바렌드레흐트(Barendrecht)와 폰(Phon) 사이에 소재한 중앙 시설을 갖춘 조경 공원인 노드랜드(Noordland)를 디자인 하였다. 이 조경 공원은 A15 고속도로의 확장을 부분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 지역은 주변의 인프라가 지배적인 지역이다. 즉, 높은 방음벽을 가진 A15 고속도로, 폰스 바안(Phonse Baan), 고압선 철당 및 광범위한 지하 배관과 케이블 네트워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. 컨셉은 두드러진 인프라에 시각적 위압감을 연출하고 이 지역을 허물기 좋은 장소로 탈바꿈하는 것이다. 이는 기존의 토목공사를 확장하고 나무를 심는 일을 통해 시도되고 있다. 새로운 언덕은 또한 이 지역에 새로운 휴양 가치를 가져오고 있다. 무엇보다 이 새로운 언덕들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지점으로 활용되거나 겨울에 뱀다를 타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.

나무 식재는 움직임의 중심이다.

이 지역에는 커다란 까치밥나무들이 심어져 있다. 이는 이 지역에 강한 움직임의 만들어 내며, 특히 나무들이 (봄에) 꽃을 피울 때나 가을에 더욱 그러하다. 또한 까치밥나무는 나무를 덮으면서 모든 케이블과 배관 지역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식물 중 하나이다. 이런 방식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다.

까치밥나무는 큰 보라수나무로 보충되는데, 이는 가장 방해되는 사회 기반 시설인 방음 벽을 가진 A15 고속도로와 높은 고압선 철당을 가리는 방식으로 위치해 있다.

대규모로, 큰 나무들과 언덕의 조합은 이 지역의 상황이 닮아 이 지역에 구조를 제공해준다. 커다란 나무들은 작은 규모에서 살펴볼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되어 있다. 이러한 조합을 통해 변화를 줄 수 있으며, 편의시설과 흥미로운 장소들을 연출할 수 있다.

프로젝트 지역의 중앙 부분은 기다란 막대 형태로, 교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여러 개의 커다란 버드나무 줄들이 심어져 있다. 이 스트림은 조경 공원의 서쪽 부분과 거주지역 근처 부분 간의 공간적 관계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출처: HOSPER